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글로벌문화산업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Edinburg
파견대학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파견기간	9개월 (2개 학기) 2019.08~2020.05
귀국여부	귀국함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제가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던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는 UTPA(University of Texas Pan America)와 UTB(University of Texas Brownsville)가 합쳐져서 생긴 학교입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Edinburg와 Brownsville에 하나씩 있었는데, 저는 그 중 Edinburg에 있는 캠퍼스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Edinburg 캠퍼스를 기준으로 끝에서 끝까지 오고 가는데 20분 정도가 걸렸던 걸 생각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히스패닉이거나, 멕시코 출신이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 심지어는 식당에서 학식을 주시던 분들까지 모두 친절했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p>① <b>'International marketing'</b> 수업은 한국에서 듣던 수업이랑 가장 느낌이 비슷했던 수업이었다. 교수님은 PPT를 띄우고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그저 앉아서 듣는 식의 수업이었다. 개강하고 첫 시간에, 교수님이 책상머리에 어색하게 앉아있던 학생들을 모조리 일으켜 세우고 일렬로 정렬시켜서 시장놀이 식으로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도록 시켰던 수업이다. 미국에 살게 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창 모든 것에 어색해하던 나와 친구가 기억난다.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의 이름 첫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야 하는 형식이었는데, 나랑 친구 둘 다 영어에 귀가 트이지 않았던 시절, 룰을 이해 못 해서 'My name is (blah blah), I like pizza.'라고 말하는 참사를 범해버렸다. 그래도 사람들이 참 친절한 건지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Her name is (blah blah), she likes pizza. And my</p>

name is blah blah..'라고 했던 게 기억난다. 챕터를 공부하고 중간중간 4~5개 정도의 챕터를 묶어 시험을 봤다. 인터넷으로 보는 시험이라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됐던 것이 좋았다. 얼추 한국에서 한글로 다 배웠던 수업을 다시 듣는 느낌이어서 과목의 내용 자체도 크게 어렵지 않았다.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열정적이셨고, 매주 빠진 학생들을 위해 Reminder 메일을 보내주셨다. Halloween 때는 사탕을 주시고, Thanksgiving 때는 도넛을 돌리시던 정도 많은 교수님이셨다. 후에 알고 보니, 교수님의 첫 제자가 우리였다. 수업 더 열심히 들을 걸 그랬다. 추천하는 과목이다.

② **'Intro to Sociology'** 수업은 수강 신청 이후, 1학점이 비어서 가장 늦게 신청한 과목이다.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온 나와 내 친구에게 크게 신경을 써주셨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수업이다. 대학 원서로 사회학과를 넣었을 만큼(결국 가진 않았지만) 사회학에 대해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나로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많이 다룬 수업이기도 하다. 국경 지대에 있는 학교인 만큼 히스패닉들의 말 하지 못할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배웠는데, 이곳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깊게 배우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들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속상해서 운 적도 있고,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영상 보고 운 적도 있다. 가끔 스페인어로 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개그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웃는 학생들 속에서 나도 함께 웃고 싶었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활동을 여럿 하신 분이니, 정말 멋진 분이다. 과제는 잘 내 주지 않으셨고, 총 네 번의 시험을 쳤다. 시험은 문제 은행 식으로 이곳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인 Quizlet이라는 사이트에서 긁어와서 내시는 것 같았다. 수업에 열정적이셨고, 1학년 수업이다 보니 학문에 갓 눈 뜨기 시작한 학생들에게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멋진 교수님이셨다.

③ **'Personal Branding and Communication'** 수업은 뭔가 수업명부터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엄청 기대를 하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정말 교수님이 재미없는 분이셨고 내가 생각한 내용의 수업이 아니어서 굉장히 실망한 수업이다. 노답이지만 매번 노트북을 들고 가서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동안 남은 과제를 하거나 노트북을 두드리며 쉴 수 있던 수업이었다. 실라버스를 보면 교수명이 M.D. Nazmas

Sakib이었는데, 여기서 M.D.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정교수가 아닌 어떤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학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서였다. 모의 면접을 봐야 했고, 기업 조사에 대한 초안, 발표, 최종 논문을 써서 제출해야 했다. 또 다른 과제로 매주 퀴즈 과제와 에세이 쓰기 과제가 있었는데, 퀴즈는 어떻게 푼다고 해도 에세이는 아무리 써도 점수가 80점 이상이 나오지를 않아서 참 허탈했었던 기억이 난다. 개강한 다음 주부터 종강 주까지 과제가 있는 것을 보면, 아무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은 수업이다.

④ **'Intercultural Context'** 수업은 내가 생각했던 분야의 수업이 아니었다. 뭔가 'Culture'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문화에 관련된 수업인가, 해서 신청한 수업이었건만 전체적인 큰 틀은 교육학의 일종이었다. 즉, 나와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은 모두 미래의 선생님이 될 친구들이었다. 마침 한국어 수업을 듣는 정말 착한 친구를 만나서 이 수업 자체보다는 수업 전후로 잡담을 하는 것에 더 재미를 붙였다. 과제가 거의 주에 하나씩 있었는데 정말 살면서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고, 크게 시간이 들지 않아서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이 수업을 들을 때, 유독 수업 내용에 집중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배우는 내용이 내가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너무 단조롭게 하시는 건지 아직 분간이 안 간다. 친구들한테 수업이 지루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매주 '배우는 것도 없고 지루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봐서 나만 수업에 집중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나 보다. 앞으로는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분야를 다루는 수업이 맞는지 확인을 잘 하고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 준 수업이다.

⑤ **'Modern Dance'** 수업은 세상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교수님이 너무 귀여우시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셨다. 사실 이 수업이 오늘 끝이 났는데, 너무 아쉬워서 눈물이 다 날 뻔했다. 거울로 가득한 무용실에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한 주에 두 번 있는 유일한 힐링 시간이었다. 교수님께서 춤을 한 번도 안 춰 본 나와 나의 친구에게 'You guys are really great now!'라며 항상 자신감을 주셨고, 항상 양 엄지를 치켜 올리시고 웃음 가득한 얼굴로 우리와 하이파이브를 하곤 하셨다. 우리에게 춤을 가르쳐 주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가만히 거울을 바라보고 서서 'Good morning, Fred'라고 스스로에게 아침 인사를

	<p>하시던 교수님, 머리카락이 이상하게 뻗쳐서 계속 내리려고 해도 안 내려가서 속상해 하시던 교수님. 그리고 막상 말은 많이 안 해 봤지만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들도 정이 많이 들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춤을 못 추던 나에게 'You're cool!', 'You got it!'이라고 말해주던 친구들과 교수님의 이름과 얼굴을 절대 잊고 싶지 않다.</p>
<p>2019-1학기 수업</p>	<p>① <b>'Piano Class for Non-Majors'</b> 수업은 한국인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이었다. 나는 피아노를 오랫동안 치고나서 또 오랫동안 쉬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피아노가 치고 싶어져서 신청한 수업이었다. 비전공자를 위한 피아노 수업은 이거 하나 밖에 없어서 모든 전공 시간을 바꿔가면서까지 이 수업 하나를 사수하려고 노력했다. 결론만 말하자면 웬만한 악보를 읽을 수 있고, 피아노를 꽤 오래 배운 나에게 이 수업 자체는 쉬웠다. 게이름과 코드를 배우고, 정말 짧은 음악 몇 개를 연주하는 수업이 과목명에 알맞은 정도의 수준인 것 같기는 했다. 교수님께서는 나에게 한국어로 말을 걸어 주시면서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배웠는지를 물어보셨다. 그리고 나에게 기왕 이 수업을 듣게 된 거, 실력이 조금이라도 늘어갔으면 좋겠다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어려운 곡을 연습하게 하셨다. 수업이 있던 건물 옆에 학생들이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를 연습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다. 피아노 수업이 끝나기 약 20분 전에 교수님께서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따로 주시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족했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피아노 수업이 끝나면 내가 원하는 악보를 연습하러 그곳에 가곤 했다. 일주일 동안의 수업 중,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만 들던 수업이었다. 중간고사는 간단하게 피아노 이론을 묻는 필기 시험과, 수업 중 연습했던 악보 하나를 연주하는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고 세심하셨고, 영어로 된 말만 듣는 여러 개의 수업 중에서 일주일에 세 시간씩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었다.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다.</p> <p>② <b>'Branding'</b> 수업도 추천하고 싶다. 한국에서 이미 들어봤던 내용을 다시 배웠는데, 영어로 다시 수업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다. 교수님께서도 정말 좋은 분이셨다. 첫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이 수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적어서 자신에게 메일을 보내 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나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누구라고</p>

해.'라는식으로 보냈더니, 수업 첫 날에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지?'라며 아는 체를 해 주셨다. 교환학생 생활 중 기뻐던 순간 TOP10 안에 그 순간이 들어간다. 사실 수업 자체는 단조로웠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이 끝난 후, 온라인으로 짧은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제출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야 했다. 시험이 어렵지 않았고, 뭔가 해야 할 것을 들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나는 늘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곤 했다. 중간, 기말고사도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식이었는데, 수업만 열심히 들었다면 절대 어렵지 않을 정도였다.

③ **'Music Marketing'** 수업은 사실 추천하고 싶지 않다. 과목명만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수업인데, 교수님께서 너무 바쁘신 건지, 수업에 열정이 없으신 건지 매번 '이걸 왜 해야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만 한 과제를 내 주시는데 검사도 안 하셨다. 수업 시간도 오후 6시부터라서 나름대로 저녁의 안온한 일상을 포기하고 들어보고자 했던 수업인데, 수업도 엄청 짧게 하셨다. 짧으면 출석을 부르고 교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5분 하시다가 수업이 끝나던 적도 있었고, 길어봤자 팀별로 토론을 하라거나 토론 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는 식이었다. 사실 수업이 빨리 끝나서 정말 행복하긴 했지만,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살짝 화가 나기도 했다. 얻은 것이라고는 학교 근처의 도시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 견학 간 정도였다. 내가 학교에 낸 돈이야 어떻든 말든 상관없이 수업이 빨리 끝나는 게 좋다!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딱 좋을 수업일 것 같다.

④ **'Marketing Research'** 위의 'Music marketing' 수업이 돈이 아까운 수업이었다면, 이 수업은 돈이 안 아깝다 못해, 두 학기를 통틀어 들은 이론 수업 중 가장 열심히 들은 수업이었다. 사실 나는 이 수업을 좋아하지 않았다. 교수님께서 내가 클래스 중 유일한 동양인이어서 무시하는 건지, 내가 특별하게 무슨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한국어로 말해도 어려운 전문적인 영어 단어를 잘 몰라서 어버버 하고 있으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곤 했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인종차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사실 다시 그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내가 받은 대우에 대해서 특별하게 claim을 제시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래도 수업 자체는 굉장히 유의미했다. 마케팅을 배우면서 최종적으로 배우게 되는 '마케팅 조사'를 영어로 배운다는 것 자체로 프라이드가 생겼고, 이 교수님은 학생들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굉장히 어려웠다. 심지어 내주시는 과제도 만만치 않았다. 주로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것들이었다. 일례로 과제를 내주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대충하고 제출했더니 정말 낮은 점수를 주시고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 오기가 생겨서 어떻게든 더 나은 점수를 받으려고 머리를 싸매고 다시 과제를 제출했더니 그제서야 좋은 점수를 주셨다. 중간고사도 그렇고, 과제도, 기말고사도 너무 어려웠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고, 교수님이 너무 밍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준 수업이 되었다. 취향이 맞으면 추천할 만한 수업이다.

⑤ **'General Psychology'** 수업은 중국인 교수님이 진행하시던 수업이었다. 교수님께서 첫 날에 내가 중국인인줄 아셨는지, 어디서 왔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 보셨다. 그 정도로 학생들에 대한 정과 수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셨다. 키가 정말 작으셨는데, 강의실 앞을 여기저기 걸어 다니시며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수업 내용은 정말 많았다. 교양 수업으로 신청한 거라서 크게 부담 없이 들으려고 한 수업이 가장 수업량이 많아지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내 상상속에서는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 사람들의 심리를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는 어떠한 기대가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 심리학에서 뇌, 눈의 구조, 코의 구조, 이런 걸 배우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애당초에 내 기대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수업 방식은 굉장히 단조로웠다. 교수님은 계속 PPT를 읽으셨고, 수업을 제대로 듣는 학생들은 정말 몇 명 없었다. 시험은 두 번은 대면, 두 번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었다. 시험 문제는 모두 Quizlet 사이트에서 긁어 오신 것 같았다.

⑥ **'Intro to Film/Video Production'** 수업에서는 주로 주제에 맞게 사진을 찍어오거나 짧은 영상을 만들어오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다정하셨다. 헝가리분이어서 영어 발음이 잘 안 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재미있는 수업을 해주셨다. 수업 시간에는 거의 영화나 영상의 짧은 클립들을 보면서 그것의 용어를 배웠고, 시험도 그냥 평범하게 배운

	<p>내용을 정리하는 식이었다. 친구들이 정말 사진과 영상을 잘 찍었었는데, 그에 비하면 내 사진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정말 창의적이라며, 정말 멋진 사진이라며 교수님이 늘 칭찬해 주셨고, 좋은 피드백도 해 주셨다.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과제를 내 주신 점이 굉장히 좋았다. 추천하는 수업이다.</p>
프로그램 운영	<p>학기가 시작하기 약 이틀 정도 전에 교환 학생들과 그 학생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리엔테이션 자리를 마련했다. 교환학생 관련 일을 진행하는 담당 부서 이름은 International Programs &amp; Partnerships(IPP)였고, 정말 많은 사람과 메일을 주고받곤 해서 정확하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최종 담당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다.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Luis에게 메일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환학생들끼리 Ballroom에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첫 달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만 잠깐 참여했었다. 교환학생 생활 동안 크고 작게 문제들이 생겼지만, 일이 조금 느리긴 해도 다 처리는 됐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일단 기본적으로 텍사스라서 그런지 많이 더웠다. 텍사스 중에서도 멕시코와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는 곳이라서 애초에 긴 옷은 거의 가져가지 않았었다. 하지만 미국 지형의 특성 상 날씨나 기온이 겹잡을 수 없이 확 바뀌었던 적도 많았다. 가끔은 얇은 패딩을 입어야 하는 정도였다. 그래도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던 약 1년 중 대부분은 맑고 온난한 날씨의 연속이었다.</p>
안전	<p>텍사스, 하면 텍사스에서 일어난 무서운 사건들이나 카우보이가 가장 먼저 생각났었는데, 내가 살았던 Edinburg는 굉장히 안전한 소도시였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고 조그마한 동네라서 재미가 없을 정도였다.</p>

<p>숙소</p>	<p>학교 기숙사( O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p> <p>UTRGV Edinburg 캠퍼스에는 총 세 개의 기숙사가 있다. 그 중, 내가 살았던 기숙사의 이름은 Unity Hall이었다. Edinburg 캠퍼스에 있는 기숙사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기숙사다. 기숙사의 1층에는 로비와 카운터, 키친이 있었다. 키친에는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원하는 때에 가끔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었다. 로비를 기준으로 서쪽은 남자 기숙사, 동쪽은 여자 기숙사로 통하는 통로가 나 있었다. 그 통로를 통과하고 나면 방이 나오는데, 1층부터 3층까지 방이 나 있다. 방은 두 명씩 쓰게 된다. 그리고 옆방에 사는 두 명의 학생들과 방과 방 사이에 나 있는 화장실을 하나 공유하며 쓰게 된다. 방도 크고 화장실의 크기도 크다. 내가 본 그 곳의 학생들은 기숙사에서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방은 쉬는 곳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주중의 밤 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는 방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는 규칙이 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방에서는 시끄럽게 떠든다. 다행히도 층마다 두 개씩 Study room이 있다. 한국의 기숙사와 다른 점은, 한 방에 거주하는 두 명의 학생이 모두 만 21세가 넘는다면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지, 내가 봐 온 방에는 꼭 술을 마실 수 없는 미성년자가 한 명씩은 있었다. 나는 룸메이트 배정 방식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는 룸메이트를 거의 무작위로 배정하고, 요즘에서야 룸메이팅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단계였다. 그에 반해 UTRGV에서 룸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상/취침 시간, 좋아하는 방의 온도, 좋아하는 음악의 스타일 등 자신의 정보를 어느정도 입력해야 했다. 그리고 그 정보에 기반하여 가장 나와 생활 방식이 잘 맞는 룸메이트를 결정해주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된 룸메이팅은 나름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다. 기숙사 생활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O ) 학교식당 개별이용 ( O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 기타 ( )</p> <p>우선 기숙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meal plan을 무조건 구매해야 한다. 나는 2019 Fall semester에는 Unlimited meal plan에 Student Union에서 Chick-fil-A나 Pizza Hut, Starbucks 등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인 Dining Dollar(DD) 50\$를 끊었었다. 학식은 아무래도 멕시코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주로 멕시코식으로 나왔다. 주말에는 브런치 메뉴라고 해서 오믈렛이나 와플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 2020 Spring semester에는 주에 14회, 그리고 75 DD를 끊어서 학교 meal plan을</p>



	이용했다.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다. 가끔은 위에 언급한 Student Union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사 먹었었다. 외부 식당도 정말 많이 갔는데, Khan's grill이나 Popeyes, Golden chicken, Wingstop을 순회하던 기억이 난다.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서 식당을 둘러보던 시기에는 한국의 맛이랑 가장 비슷했던 Khan's grill에 많이 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Wingstop에 가서 파마산 갈릭 소스와 망고 하바네로 소스 반반으로 한 왕을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난다.
교통	기숙사에서 생활해서 학교까지는 항상 걸어 다녔다. Edinburg 캠퍼스와 Brownsville 캠퍼스 사이에는 셔틀 버스가 여러 대 있어서 만약 Brownsville 캠퍼스에서 하는 수업을 듣게 되더라도, 시간만 잘 맞으면 상관없을 것 같다. 시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시내로 나가는 방법은 걷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최대 20분 거리에 모든 음식점들이 몰려 있으며, 월마트, 은행 등 없는 게 없다. 조금 더 멀리 나가야 한다면 넓은 땅덩어리 때문에 무조건 차가 필요하다. Edinburg를 기준으로 주변에서 가장 큰 도시는 아마 San Antonio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차를 타고 약 4시간을 가야 나오는 거리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약 360만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편이 거의 없어져서 항공료가 평소보다 비싸짐
Fees	Fall 2019 Int'l Student Service Fee 75.00\$ Medical Service Fee 50.00\$  Spring 2020 Int'l Student Service Fee 75.00\$	
보험료	Fall 2019 Int'l Medical Insurance 1,158.00\$  Spring 2020 Int'l Medical Insurance 1,158.00\$	자매 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에 가입함
숙소	Fall 2019 Unity Hall - Dorm Room 1,281.86\$	

	Spring 2020 Unity Hall - Dorm Room 1,281.86\$	
식비	약 2,000,000원	
교통비	약 100,000원	
책값	약 200,000원	아마존과 같은 사이트에서 책을 렌트하여 씬, 싸거나 렌트할 수 없는 책은 구매함
기타1	약 1,600,000원	텍사스 여행
기타2	약 2,200,000원	플로리다 여행
합계	총 22,200,000원	

## 5. 출국 전 준비사항

아무리 더운 곳이라지만 긴 팔, 긴 바지, 그리고 얇은 패딩 하나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출국하는 첫 날에 여권을 잃어버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권을 비롯해서 서류들 잃어버리지 않게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크게 준비할 사항은 없는 것 같고, 서류 준비만 잘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도 토익이나 토플 말고, 실생활에서 쓰일 수 있게 넷플릭스에서 영어로 된 드라마를 보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을 다녀와서야 느끼는 거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넷플릭스의 <더 서클: 미국> 굉장히 추천 드립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 준비를 하길 잘했고, 그저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만 있습니다. 아직 그 곳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교환학생은 대학을 다니면서 꼭 한 번은 도전해 볼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영어를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지구 곳곳의 친구들을 만난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날아가서 타국에 약 1년동안 사는 것도 어쩌면 다시는 못 할 수 있는 경험이라서 값졌습니다. 다시 교환학생 지원 전으로 돌아간대도 저는 똑같이 이 학교에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행복한 1년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Unity Hall 기숙사 앞



Edinburg 캠퍼스와 하늘



텍사스 명물 다람쥐



도서관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



흔한 텍사스 하늘



기숙사 앞 분위기



Halloween day 친구들과



Christmas 친구들과



혼자 간 Universal Studio Orlando



영화 Florida project의 Pink Hotel